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4년
2015년 2월 9일
음력 12월 21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법등(구창회)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9년 제183호

종조 탄신 108주년 기념 종령법어

오늘은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대성사께서 탄신하신지 1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정대성사께서는 어려서부터 비범하여 한 번 보고들은 것은 잊지 않으셨고 유년시절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셨습니다.

개화의 물결과 함께 현대 고등교육을 마친 후 교육계에 몸담으시며 후학양성에 힘쓰셨고 이후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시던중 6.25사변으로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쟁의 참혹함과 도탄에 빠진 중생들의 고통을 목격하시고,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는 대자대비의 서원으로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사라진 밀교의 비법과 경궤, 그리고 다라니와 수법 등을 발굴하시어 정통밀교를 통한 구국도생의 대원을 세우시고 정연한 교상과 사상을 갖춘 정통밀교 종단을 창종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창종 후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즉도(當相卽道)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事理)를 구현하므로써 현세정화(現世淨化)와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고,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제생의세(濟生醫世)하는 법이 다르므로, 특히 이원진리(二元眞理)를 밝혀 물심병진법 (物心竝進法)을 가르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의 실천법 으로써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써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확립하셨 습니다.

오늘 원정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조국평화통일과 밀엄국토의 대원을 이룩하고 나아가 전인류가 진언밀법으로 하나되어 온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갑시다.

아울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우리 총지종이 길이 융창하게 하여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복덕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44년 1월 29일
종령 효강 합장

원정 대성사의 탄신은 이 땅의 밀교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다

1월 28일 전국 사원에서 제108주년 원정대성사 탄신대재 봉행

▲ 원정대성사 108주년 탄신대재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제108주년 탄신대재가 1월28일 원정기념관과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서울 경인교구 스승과 교도, 유가족 대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개식사에 이어 스승 및 교도들의 헌화와 훈향 정공이 있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창종 후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즉도(當相卽道)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事理)를 구현하므로써 현세정화(現世淨化)와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고,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제생의세(濟生醫世)하는 법이 다르므로, 특히 이원진리(二元眞理)를 밝혀 물심병진법(物心竝進法)을 가르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의 실천법으로써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써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확립하셨습니다. 오늘 원정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조국평화통일과 밀엄국토의 대원을 이룩하고 나아가 전 인류가 진언밀법으로 하나 되어 온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갑시다."며 원정 대성사의 탄신으로 정통밀교를 이 땅에 바로 세우시고 나라와 중생을 위해 세우신 큰 뜻을 찬탄했다.

〈2면에 계속〉

지면안내

1면 불교 총지종 을미년 신년 하례법회
2면 불교 총지종 중앙종회 워크숍
3면 종조법설집 윤독회 제2차 모임 개최
5면 환당대종사 법어집 출간기념 행장소개
6면 주요종단 신년 기자회견
7면 류큐 왕국 특별전
11면 영화에서 불교보기 〈동승〉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벼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화합을 바탕으로 서로의 갈등을 치유하는 한해가 되기를

신년하례회 1월15일 총본산 총지사에서 300여명 동참

▲ 총기44년 불교 총지종 신년하례법회

총기44년 을미년 신년하례법회가 1월15일 오후 1시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법등 통리원장과 종단 집행부를 비롯한 각 사원의 주교, 기로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 했다.

인선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는 원정기념관 참배를 시작으로 승단 하례, 교도일동 하례, 효강 종령 예하와 법등 통리원장의 헌화 및 훈향 정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은 그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 화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종단과 교도 가정 화합을 최우선으로 서원하는 해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재난 없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화합을 바탕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치유되고 부처님의 참뜻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했다.

이어 법등 통리원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스승님들과 교도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새해 불공을 용맹 정진으로 마치신 스승과 교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을미년에도 서원하신 모든 계획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생활의 불교화 · 불교의 생활화
卽身成佛의 大道 불교총지종

상반기 49일 불공

일 시 | 총기 44년 2월 23일 ~ 4월 12일
장 소 | 전국 서원당
대 상 |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펴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서원 드립니다.

(사진제공 = 포항 수인사 안성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

1면에 이어

법등 통리원장은 봉행사에서 "우주법계와 우리들 마음 법계에 충만하시고 항상 하시는 진리의 부처님이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 진언을 수행과 신행의 본존으로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체 설법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깨쳐가는 총지종문의 진언 수행자들은 공부와 수행을 잘하면 지혜와 자비가 충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원정 대정사님의 탄신하신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종조님 탄신 108주년을 맞이 하면서 종조님의 크나큰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조님의 은혜에 가장 크게 보답하는 길은 그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처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은혜를 갚는 길이자 종단의 교세 발전을 이루자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더욱 더 크게 펼치고 실천하는 뜻으로, 용맹으로 수행정진 할 것을 총지종문의 모든 스승님들과 교도들과 함께 서원합니다. 더불어 종조님의 덕화와 법력이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깃들어 행복한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며 종조님의 대원을 되새겼다.

김은숙 서울. 경인 신정회장은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 108주년을 맞아 큰 스승으로서의 업적에 더욱 거룩하여 지나니, 저희들에게 길이길이 정진력과 자비지혜 구족케 하여 주옵소서. 퇴전함이 없게 하소서. 용기와 건강,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불사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일체 교도 가정에 환희와 행복이 충만하며, 일체소원이 두루 성취하게 하옵소서."며 종조님 전에 발원하였다.

서울 · 경인 마니 합창단의 축가를 끝으로 제108주년 원정 대성사 탄신대제를 마쳤다. 법회 후에는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동참한 스승 교도들은 원정기념관에 전시된 종조님의 유품들을 관람하며 평소 검소한 생활과 수행정진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던 모습을 되새겼다.

원정기념관=김종열 기자

현장스케치

치열한 토론과 미래를 향한 다양한 방안 제시

총기44년 중앙종의회 워크숍 현장

▲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중앙종회 워크숍

지난 1월 26일,27일 양일간 경주에서는 불교총지종 종의회(의장 수현 정사)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종헌, 종법의 각 부분을 의원들이 나누어 연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집행부도 동참한 개회법회에서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는 "이번 워크숍은 남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 스승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우리 종단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종의회 의원님들 각자가 연구하신 성과를 발표해주시고, 각자 생각하시는 의견을 가감 없이 토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며 워크숍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도현정사의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바로 토의에 들어간 종의회는 초반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다. 종법의 한 구절마다 치열한 토론이 전개 되었다. 어려운 한자 조어(造語)는 오랜 종무 경험을 가진 지성정사의 자세한 설명도 더해졌다. 공양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뜨는 의원들은 없었다. 일초라도 아까운 듯 수행의 자세로 모두들 정진하는 마음으로 열기를 더해 갔다.

승가에는 부처님 재세 시(在世 時)부터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사를 논의하는 '대중공사'라는 민주적 토론의 전통이 있다.

이 자리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사부대중이 모여 상하 지위를 모두 버리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 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광장에서 연설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투표로 결정하는 정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총지종은 우리나라 어느 종단보다도 민주적인 종단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

창종주 원정대성사는 종단의 기틀을 세우실 때부터 동참스승 및 교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의회를 먼저 구성하고 재단법인설립 등 중요한 사항을 대중공사의 토론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이런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져 원의회, 중앙종의회, 승단총회 등 다양한 방식과 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는 우리 종단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작은 일도 서로 상의하고 심사숙고하는 방식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일의 추진에 집중력을 높인다.

이번 중앙종의회 워크숍은 종단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단의 미래는 밝다는 것이다. 나이와 승납을 떠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고, 각 의원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은 토씨 하나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모습에서 총지종의 민주적인 종단 운영과 수행 전통을 엿볼 수 있었다.

지금 한국 불교는 대 변혁기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승가 중심의 종단과 사찰 운영 방식이 신도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승가는 수행과 교화에 집중하고 사찰의 운영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운영 방식은 이미 40년 전 총지종이 도입했다. 우리는 이미 40년을 타 종단보다도 앞선 것이다. 그러나 한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도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경주=김종열 기자

총기44년 불교총지종 인사발령안

소 속	불 명	이 름	발 령 사 항	발령일자
시법사	선도원(善導願)	신순덕(申順德)	시법사 근무를 면함.	총기44. 1. 16.
단향사	경원(鏡願)	최순일(崔順一)	단향사 근무를 면함.	총기44. 1. 16.
자석사	법상인(法相印)	유덕연(柳德蓮)	자석사 주교근무를 면함. 정각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4. 1. 16.
화음사	수 현(修玄)	박기산(朴起山)	화음사 주교근무를 면함. 자석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4. 1. 16.
화음사	자심관(慈心觀)	김나향(金拏香)	화음사 근무를 면함. 자석사 근무를 명함.	총기44. 1. 16.
정각사	록 경(祿梗)	황보상민(皇甫相旼)	정각사 주교근무를 면함. 화음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4. 1. 16.
정각사	법수연(法秀衍)	이희자(李姬子)	정각사 근무를 면함. 화음사 근무를 명함.	총기44. 1. 16.
정각사	법선(法禪)	황의수(黃義守)	정각사 근무를 면함. 법성사 주교근무를 명함.(학교법인 관음학사 사무국장 및 동해중 정교 겸직)	총기44. 1. 17.
총지사	서 강(曙岡)	인이호(印怡好)	총지사 근무를 면함. 시법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4. 1. 16.
법성사	혜 광(慧光)	박종한(朴鍾漢)	법성사 주교근무를 면함. 정각사 근무를 명함.	총기44. 1. 17.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개천사 이희권 12/31 20,000
이복남 1/5 10,000
강순시 1/12 10,000
관성사 황성녀 12/30 10,000
인 선 1/19 20,000
관음사 신막심 1/23 10,000
기 로 혜 암 1/5 50,000
최상관 1/5 50,000
대 관 1/19 10,000
밀공정 1/19 10,000
법수원 1/19 10,000
법장화 1/19 10,000
법지원 1/19 10,000
불멸심 1/19 10,000
사홍화 1/19 10,000
상지화 1/19 10,000
수증원 1/19 10,000
총지화 1/19 10,000
선도원 1/19 10,000
단음사 법연지 1/15 10,000

동해중학교
만보사 탁상달 1/15 20,000
밀인사 박선희 1/12 20,000
정정희 12/30 5,000
이채원 1/22 10,000
밀행사 이연주 1/22 10,000
법천사 무명씨 1/16 10,000
벽룡사 김정숙 1/5 10,000
양정현 1/12 10,000
양지현 1/12 10,000
삼밀사 법 일 1/16 10,000
선립사 하명순 1/15 10,000
수인사 심지장 1/23 10,000
무명씨 12/30 10,000
승천사 정순득 1/13 10,000
원 봉 1/16 10,000
실지사 지선행 1/16 10,000
정경자 12/29 10,000
운천사 정우석 1/21 10,000

일원어린이집
무명씨 1/14 10,000
하재희 12/26 30,000
권향덕 12/26 10,000
이준동 12/26 10,000
서선숙 12/26 10,000
김지연 12/26 10,000
이지민 12/26 10,000
강경화 12/26 10,000
정각사 김지영 1/23 10,000
정심사 홍귀선 12/28 30,000
지인사 원정언 1/15 20,000
허성동 1/14 30,000
지 성 1/16 10,000
승효제 1/16 10,000
초록어린이집
1/7 319,000
황화성 12/26 30,000
공순덕 12/26 45,000
이은주 12/29 10,000

총지사 오현주 12/29 10,000
화음사 법 등 1/5 30,000
흥국사 강순란 1/5 10,000
사원명무기재
지 정 1/16 20,000
김용미 12/29 10,000
박문실 12/29 10,000
정종호 12/29 10,000
구미자 12/31 10,000
곽노선 1/13 50,000
김갑선 1/19 10,000

12월26일부터 1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단향사 주교에 신임 혜봉 정사 임명

수행정진과 교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

▲ 신임 혜봉 정사에게 가사 수여 기념촬영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는 1월 30일 통리원 종령실에서 신임 혜봉(慧奉) 정사의 가사 수여식을 봉행했다.

수여식에는 통리원장 법등 정사,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가 참석했다.

가사수여식에 앞서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는 시무교육수료증을 신임 혜봉 정사에게 수여하고 교육 기간동안 성실히 임한 자세를 교화에 활용 하길 당부했다.

이어 종령 효강 대종사는 신임 혜봉 정사에게 법명과 가사를 수여하고, 원정 대성사의 정통밀교의 전법을 이어갈 제자로서 매사에 신중하고, 수행 정진에 매진할 것을 교시하셨다.

신임 혜봉 정사는 승직 선서를 하고 진언밀법의 교화에 남은 생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통영 단향사 주교 임명장을 수여하고, 단향사가 서부 경남의 중심사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교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신임 혜봉(김민식) 정사는 부산시에서 30여년간 행정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지방사무관으로 퇴직한 행정 전문가로 운천사에서 시무로 근무했다. 통리원 발령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통리원=권혁준 교무

소 속	불 명	이 름	발령사항	발령일자
운천사	혜봉(慧奉)	김민식(金玟植)	운천사 시무근무를 면함. 승직(지송급)에 명함. 단향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4. 1. 16.

부산 정각사 「단월회」 회장단 이 · 취임식

신임 회장에 강경중 각자 선출

▲ 감사패를 전달하는 단월회 신임회장 강경중 각자

총기 44년 부산 정각사 각자 신행단체 「단월회」 신임회장에 동해중학교 교장을 역임한 강경중 각자가 선출 되었다.

「단월회」 2015년 1월 11일 새해불공 회향 자성일 법회 후 서원당 2층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모임을 갖고 「단월회」 회장단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새로 선출된 단월회 강경중 회장은 2014년12월 말까지 단월회를 이끌어온 김광원 전임 회장과 총무 탁상달 각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동안 단월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공로를 치하하였다.

「단월회」는 부산 정각사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각자님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월1회 정기 모임과 자성일 법회 후 휴게실에서 차담을 나누면서 서로 경책하고 신행담을 나눈다. 또한 봄 · 가을 정기 산사순례 행사, 불우이웃돕기, 정각사 바라밀공부방 지원 등 신행생활을 해오고 있다.

부산 정각사 = 동해중 교감 김재근

총기44년 새해불공 원만 회향

자신의 복덕을 증장시켜, 나와 남이 같이 행복한 한해

총기44년 새해불공이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서원당에서 1월 5일 오전 10시 부터 12일 새벽 4시까지 7박 8일 간의 일정을 원만히 회향했다.

새해불공은 한해의 살림불공으로 새해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교도들이 종단의 발전과 국가의 안녕, 개인의 서원을 이루고자 용맹 정진하는 불사다.

법등 통리원장은 총지사 새해불공 회향법회에서 설법을 통해 "스스로 지은 복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이해하시고, 많은 복을 쌓으시고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을미년이 되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을미년 새해불공의 원만한 회향과 교도들의 소구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했다.

총지종의 전통 수행 정진법인 새해불공은 원정 대성사가 입교개종과 함께 시행한 정통 수행으로 해마다 새해 첫 주에 시행된다.

『종조법설집』 윤독회 제2차 모임 개최

법설집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1월 30일 대전 만보사에서

▲ 대전 만보사에서 열린 제2차 종조법설집 윤독회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는 1월 30일 대전 만보사에서 『종조법설집』 윤독회 제2차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종조법설집』 가운데 「교상과 사상」 편의 '만다라의 기초지식'과 '신구의 삼밀'에 대한 윤독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용어에 대한 해설과 함께 문구, 맞춤법, 내용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1차 회의는 지난 2014년 12월 12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는데, 윤독회의 방향과 토의절차 등을 논의하였고, 『종조법설집』의 「밀교」 편을 다루었다.

다음에 있을 3차 회의는 3월 20일 경북 영천 단음사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현재의 윤독회 모임은 1기로서 교구장이 추천한 승직자와 승직 10년차 이하의 전수들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10차에 걸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기 모임의 활동이 끝나면 이어서 2기 윤독회를 중진 정사와 승직 11년차 이상의 전수들로 구성하고, 이후 제3기는 기로와 원로스승 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마니합창단 붓다콘서트 초청 공연

▲ 불교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마니합창단 붓다콘서트 초청 공연

총지종 마니합창단(지휘 김양희)은 1월 15일, 좋은 벗 풍경소리 (총재 지현스님)가 주최하고 붓다 콘서트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덕신 스님과 함께하는 붓다콘서트'에 초청 공연하였다.

조계종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2015년 1월 콘서트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객석을 채웠다. 마니합창단은 그동안 쌓은 기량을 아름다운 법음으로 불자들에게 전해 박수갈채와 앵콜을 받았다.

(사진= 불교문화기념관 김종열 기자)

불교총지종 교도복지시설 희락원 입소안내

불교총지종이 교도들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새로 운영하는 성남 교도복지시설 희락원이 준공 되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신행생활과 함께 노후를 보내실 총지종 교도들의 입주를 기다립니다. 서울 · 경인 교도들 중 65세 이상으로 '오세대제도' 를 성만 하신 분과 입교20년 이상인 총지종 교도는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총지종 시회복지재단의 내부 심사에 통과 하여야 합니다.)

-교도복지시설: 성남 법천사 내, 3층 총 15실
-입소인원 : 1인 1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부는 1실 2인 입주가능)
-편의시설: 공동세탁실, 공동목욕탕, 공동취사시설 및 1일 3식 제공
*매월 소정의 공양 준비금은 따로 납부합니다.

문의 각 사원 주교 및 총지종 통리원 전화) 02)-552-1080

▲ 개별화장실

▲ 공동욕실

▲ 공동주방

▲ 생활공간

불교의 선정 36 미얀마의 사념처 수행

미얀마의 위빠싸나 수행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미얀마의 위빠싸나는 《대념처경》에 나오는 사념처 수행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미얀마의 이들 수행법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예를 들면, 호흡을 관찰할 때도 코 끝에 주로 집중하는 파가 있기도 하고 배의 나가고 들어감을 관찰하는 곳도 있다. 마하시 센터 같은 경우는 호흡을 관찰할 때 주로 복부의 일어남과 꺼짐에 마음을 모은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수행법도 원칙은 대동소이하며 수행의 기초를 자신의 경험상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이론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관찰하며 스승으로부터의 지도도 단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지도만 받음으로써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느끼고 살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미얀마의 다양한 위빠싸나 수행법의 근본 목적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무상과 고와 무아의 실상을 바로 보아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불교의 대명제에 부합하기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위빠싸나 수행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행자의 주의력은 매우 예민해지며 지금껏 알아차리지 못했던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알아차림이 있게 된다. 이때 지도하는 스승은 수행자의 발전 정도나 상태에 따라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해 준다. 수행자는 스승의 지도에 따라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것이 곧 스스로의 스승 역할을 하면서 수행이 향상된다.

위빠싸나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수행법
복부 주시는 초보 수행자에게도 적합

항상 깨어 있는 민감한 관찰력이 미얀마 위빠싸나 수행의 특징이다. 제대로 된 스승은 매우 주의하여 지도를 받는 수행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절대로 자기의 성향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단순한 추종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그리고 어떤 암시나 최면 등에 의하여 감정을 촉발하거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며 오직 바른 관찰과 세심한 주의력으로 스스로를 살펴 무상, 고, 무아를 직시하도록 지도한다. 수행자 또한 어떤 신통력이나 신비한 현상, 혹은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며 기대를 가지고 빨리 성취하겠다는 욕심도 버린다. 단지 깨어있는 상태로 오로지 배의 일어나고 꺼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자체를 수행의 목표로 삼고 바라본다. 다시 말하면, 수행을 시작할 때에 곧 열반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선정력을 기르겠다는 일념으로 호흡을 관찰하며 정념에 머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간관(幹觀), 혹은 순관(純觀)이라고 하는데 주된 관법, 혹은 순수한 관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호흡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명색(名色)을 분별하며 그것들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예민한 알아차림으로써 선정력을 증강한 후에 무상, 고, 무아에 대한 통찰로 구경에는 해탈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미얀마 위빠싸나의 특색이고 장점이다.

중국에서 발달한 참선, 예를 들면 간화선이나 조사선 등과 비교하면 수행방법이 훨씬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직접적이어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간단하면서도 직접적 효과를 빨리 맛볼 수 있는 뛰어난 수행법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미얀마의 수행법은 단지 조금의 변형을 거쳐 좀 더 쉬운 수행법으로 변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흡에 따른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선정력을 향상

마하시센터에서는 호흡을 관찰함에 있어 복부의 일어나고 꺼짐을 중심으로 한다. 전통적인 방법은 코 끝에 호흡을 집중하는 것이지만 마하시센터에서는 비교적 움직임이 현저한 복부의 일어나고 들어감을 관찰한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초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코끝에만 호흡을 주의하는 것은 지속적인 집중력을 지니기가 어렵지만 호흡에 따라 복부의 일어나고 꺼짐을 관찰하는 것은 뚜렷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위빠싸나 수행은 그 자세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앉아서 하는 방법, 걸으면서 하는 방법(이것을 경행이라 한다), 서서 하는 방법, 누워서 하는 방법, 그리고 행주좌와 모든 동작을 통하여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수행자는 앉아서 하는 좌선과 걸으면서 하는 경행을 주로 하고 서서 하는 방법과 누워서 하는 방법은 보조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선정력이 향상되면 행주좌와 동작기거 모든 것을 수행과 직결하여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 확대한다. 진정한 수행은 이 단계가 되어야 완성된다.

자연스러운 자세로 자연스럽게 호흡
오직 복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우선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앉을 때는 양 다리를 엇갈리게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결가부좌가 좋지만 어느 한 다리를 다른 쪽의 허벅지에 올려놓는 반가부좌도 무방하며 다리가 불편한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하여도 괜찮다. 손은 자연스럽게 양 무릎 위에 놓거나 왼손바닥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엄지를 맞닿게 하는 선정인(볍계정인이라고도 한다)을 하면 된다. 양 무릎 위에 손을 올릴 때에도 손등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상관없이 편한대로 해도 된다. 엉덩이 부분에 방석을 받치고 앉으면 자세도 훨씬 발라지고 편안하다. 이 수행법의 주안점은 어차피 호흡을 통하여 복부의 일어나고 꺼짐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며 자세에 그다지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장시간 앉아있어야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찾게 될 것이다.

초심자는 호흡에 따라 복부의 일어남과 꺼짐을 관찰하는데 그 느낌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한손이나 혹은 두 손을 복부에 대고 몇 차례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나오고 숨을 내 쉴 때는 배가 꺼지는 것을 느껴본다. 배가 나올 때는 '일어남'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고 배가 들어갈 때는 '들어감'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배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주시를 원활하게 하게 되면 복부에서 손을 떼도 좋다. 복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잡념이 들게 되면 다시 복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어남', '들어감'의 이름 붙이기도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숙달되면 일일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복부의 실제 움직임을 주시하면 된다. 이때 수행자는 복부의 움직임을 확실히 느끼기 위하여 일부러 심호흡을 한다든가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호흡을 일부러 조절하면 몸에 무리가 와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등 몸에 부담을 주어 쉽게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빠싸나의 호흡은 주시를 위한 것이지 복식호흡이나 단전호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호흡에 따른 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호흡이 빠르면 빠른대로, 느리면 느린대로 그저 주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시를 한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절로 잡념이 생기며 주의가 자꾸 다른 곳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선정력이 강해지지도 않고 주시를 통한 지혜도 늘 수가 없다. 초심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잡념도 들고 때로는 졸리기도 한다. 그럴 때는 얼른 각성하고 주의를 다시 복부의 움직임으로 돌려야 한다.

앉아서 수행하는 좌선에서는 복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외에도 바닥과 몸의 접촉점에 대한 주시나 통증, 가려움 등등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주시하는 방법이 보태어진다. 이러한 방법은 복부의 주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해지며 주시의 대상을 늘려 선정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수행자는 거꾸로 주시하는 힘이 길러져 망상이나 잡념, 졸음 등에서 벗어나 주시의 대상이 오히려 줄어든다.

다음으로는 걸으면서 하는 행선이 있다. 이것을 경행이라고도 하는데 위빠싸나 수행에서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특히 졸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처님께서도 수시로 행선을 하셨고 제자들도 무리를 지어 경행을 했다고 한다. 행선을 함으로써 정념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상의 모든 과정을 정념의 훈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선의 과정을 걷기의 빠르기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빠른 걸음, 중간 속도의 걸음, 느린 걸음의 3종류로 나눌 수 있빠른 걸음은 우리가 보통 걷는 것 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을 말하며 느린 걸음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걷는 보통의 속도보다 약간 느린 것을 말한다. 걸을 때는 마음을 항상 걸음걸이에 두고 일직선으로 걷되 노선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는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노선을 끝까지 걸은 후에는 몸을 돌려 걷도록 한다. 처음 5~10분 동안은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보통의 속도로 걸으면 된다. 초심자이거나 숙달된 자 모두 처음에는 빠른 걸음에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느리게 걸으면 수행자의 주의력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걷는 것도 마음을 쉽게 집중하지 못하거나 빨리 피곤해 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빠른 걸음으로 걷지만 곧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여 걸음걸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걸을 때는 눈을 약간 아래로 하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것처럼 해서는 안되며 그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이 발이 디디는 곳을 주시하면 된다. 손은 앞으로 차수를 하거나 가볍게 뒷짐을 지듯이 하고 걷는 것이 좋다. 발을 너무 높이 들거나 질질 끌지 말고 보폭도 너무 넓게 벌리거나 좁게도 하지 말고 적당히 유지한다. 처음에는 왼발을 내디딜 때는 왼발임을 알아차리고 오른 발을 내디딜 때는 오른발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는 발을 들려고 할 때는 들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땅에 디딜 때는 디디는 의도를 알아차린다. 나아가서는 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며 다시 바닥을 디디려는 의도를 알아차린다. 이러한 것이 숙달되면 나중에는 바닥에 디딘 발이 들어 올려지며 앞으로 나아가고 땅에 디디려고 하며 발끝이 먼저 땅에 닫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주시할 수 있게 된다. 발의 움직임에 대한 의도 뿐만 아니라 발과 바닥이 닿을 때의 감촉, 느낌까지도 세밀하게 주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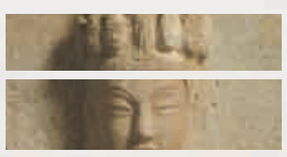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복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환당 대종사 (歡堂 大宗師) 법어집
"자비의 훈풍으로 밀엄정토를" 출간

다시 돌아보는 환당 대종사 (歡堂 大宗師) 행장

▲ 생전 경전을 연구하시는 환당 대종사

▲ 6.25동란 후 공무원으로 재직시 환당 대종사

▲ 불교 총지종 창종 후 원정 대성사와 함께

환당 대종사 (歡堂 大宗師:1911-1994)께서는 서기 1911년 10월 16일 경북 영일군 기계면 오덕리에서 출생하셨다.

부친 이석경李錫炅님과 모친 정특鄭特님의 차남으로 출생하셨으며 본관은 여강(驪江) 이씨. 속명은 원재(源載). 불명은 환당(歡堂).

이후 정통밀교의 수립에 뜻을 품고 원정 대성사를 보필하여 총지종 창종에 참여하셨다. 창종 이후 기획실장, 통리원장 등의 요직을 거쳐 1980년 총지종 법장원장에 추대되셨으며 1986년부터 제3대, 제5대 종령에 추대되시어 1993년 입적 때까지 법장원장과 중앙교육원장을 겸임하셨다.

성품으로 주위를 기쁘게 하시고 본인도 생을 즐기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셨다. 화가 나면 도리어 어이없으시다는 듯 껄껄 웃으시면서 끝까지 인욕과 자비로서 사람들을 감화시킨 수많은 일화(逸話)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아무리 어린 사람에게라도 존대말을 쓰셨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 풀 한 포기, 파리 한 마리의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우주만물을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현현(顯現)으로 여기시며 소중히 여기셨다.

거기에다가 동서양의 지식에 해박하시고 밀교아사리로서 수행과 교화에 진력하시면서 생활불교를 실천하려 하신 보기 드문 스승이셨다. 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며 절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불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으며 진정한 불교는 승속을 초월하여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지금 이곳이 바로 불국정토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그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생활불교의 정립을 위하여 창종 초기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원정대성사를 보필하여 교화는 물론 총지종의 교상(教相)과 사상(事相)의 확립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셨다.

저서로는 《불교총전》, 《정통밀교》와 《종조법설집》 등을 편찬했으며, 총지종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그리고 준제관음법의 근거가 되는 《현밀원통성불심요집》 등을 번역하셨다.

〈환당대종사 법어록
"자비의 훈풍으로 밀엄정토를" 에서 발췌〉

항상 온화한 성격으로 주위를 기쁘게 하신 환당 대종사

유아 시절에 이미 사서삼경을 비롯한 한학에 통달하시고 일본에 유학, 웅본(熊本)시립중학교를 수료하고 귀국하여 불우한 고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전국을 유람하셨다. 계속하여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교육계에 투신하여 후학을 지도하다가 6.25 이후 관계에 잠시 몸담으셨다.

이 무렵 부인 정현교(鄭賢敎;불명 一法華)보살의 권유로 진각종에 입교하여 스승으로 활동했으나 수행 방법에 회의를 가지던 중 1969년 진각종 총인(후일 총지종을 창종한 원정(苑淨) 대성사)에게 발탁되어 준제법 수립에 동참하셨다.

환당대종사께서는 천성이 온화하고 인자하신데다가 불법의 인도로 자비심이 충만하시어 누구나가 우러르고 칭송하였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시어 행동거지가 법도에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상말 한번 입에 올리신 적이 없으셨다. 소탈하고 검소한 생활습관이 몸에 익으시어 쌀 한 톨, 천한 조각이라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셨으며 욕심이 없으셔서 누구에게나 가진 것을 나누어주기를 좋아하셨다. 정직하고 청렴한 성품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였으며 재가생활을 하셨지만 무소유를 철저히 실천하신 참된 대승보살이셨다.

당신의 불명인 '歡堂'에 어울리게 항상 온화한

▲ 총지사에서 교도들과 함께

올해 미국 중국 태국에 문장및 상표등록
해외 6개국 상표등록후 해외법인설립 계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불기2559(2015)년 신년기자회견

▲ 조계종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자승 총무원장

"이미 프랑스등 3개국에 조계종 문장및 상표등록을 했고, 올해는 미국 중국 태국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해외 6개국 문장및 상표등록후 해외법인 설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월 14일(수)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불기2559(2015)년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워싱턴 보림사 경암스님 입적후 사찰에 대한 재산권 분쟁이 진행되고, 하와이 관음사도 비구니스님 입적후 재판이 이어지는 것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현재 해외포교 1세대 스님들이 입적하는 상황에서 해외사찰의 재산권 문제는 계속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조계종은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본지가 질의했다.

이에대해 총무부장 지현스님은 "현지 스님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중장기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포교에 나가 개인법인으로 되어있다"며 "뉴욕에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했는데 원각사를 완성하면 거기를 기점으로 사찰들을 등록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스님은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해를 만들겠다"며 "조계종은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해를 만들겠습니다.'를 종단운영의 기조로 삼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조계종은 오는 1월 28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시작한다"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총무원장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종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의견에 귀를 열고자 함이며 그 의견이 비판이든 견제이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을 활짝 열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로 다른 주장과 의견을 함께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탁마의 장을 열어 놓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아름다운 전통을 새롭게 펼쳐가겠다"며 "대중공사를 통해 모여진 의견은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종도 여러분께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천명했다.

자승스님은 2015년 대한불교조계종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경복궁과 견지동, 인사동을 잇는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만들어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킴은 물론 미래 가치를 재창조해 나가는 역사적인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문화의 조화로움과 삶의 지혜로움이 공존하는 이 시대 불교의 상징을 만들어 가는 일이며, 한국불교사와 종단사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긋는 대작불사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전통문화의 가치가 시간과 공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올해 광복 7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타개할 뾰족한 수단과 방법도 보이질 않고 있는 만큼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공존과 상생, 합심을 기반으로 한 불교통일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동국대 교수들이 한국불교의 통일사상인 화쟁을 기반으로 공존과 상생, 합심을 키워드로 마음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준비하는 불교통일선언은 국가차원의 올바른 통일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중적 통일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특히 5월에는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과 가능하다면 조선불교도련맹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한국불교 정신문화의 정수인 간화선의 선근을 일체중생의 마음에 심어 세계만방에 선양하기 위한 무차선대법회와 무형문화재인 연등회 행사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우리 민족의 자산인 전통문화를 널리 알려냄은 물론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기원대회를 여법하게 준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동행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건립 등 해외구호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자원 브랜드인 템플스테이는 경제적 가치기준을 넘어 세상과의 공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5월,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 개최 예정

진각종 지난해 7~8% 성장...진각70년 앞두고
종무조직 혁신 · 스마트 포교 등 14대 과제 제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신년 기자간담회

▲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진각종은 지난해 재정은 7~8%, 새로운 수계자도 50%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평택과 용인 수지에 심인당을 개설하고, 해외도 스리랑카 네팔에 심인당을 개원합니다. 또 내년 진각 70주년을 맞아 1년지 대계를 세우도록하는 한 해가 되도록 진각문화의 체를 세우고 자비희사 실천을 서원합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1월 20일 오후 4시 진각문화전승원 4층 대회의실에서 종무조직 혁신 · 스마트 포교 등 14대 과제를 제시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각 70년, 진각새불교운동 토대 마련을 위한 교역자와 산하단체장, 교도들을 재교육시켜 포교및 교화역량을 강화하는 한해'를 천명했다.

진각종이 이날 밝힌 14대 과제는 △진각 70년사 정리 △진각 천년의 비전마련 △종무조직 혁신 △신교도 재원의 교화적 활동 확대 △신행활동 혁신 △교구활성화 및 특성화 △신규 심인당 설립 △종행정 의사소통 체계 개선 △전 진언행자 포교사화 기초마련 △진각 가족 결연 확대 △다양한 신행문화행사 개발 △스마트 포교 △소통과 나눔의 정신 사회적 공유 △지역교화영역 확대 등이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진각종은 진기 69년은 재가불교및 다라니불교의 확산, 노인섬기는 문화 확산, 저출산 극복 등에 힘을 쏟는등 진각문화의 체를 세우고 육행실천의 근간이 되는 자비희사 정신의 실천을 서원하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안으로는 진각종의 정체성을 살려 재가불교, 다라니불교의 확장을 위해 일반 신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확대와 품계제도 도입으로 전 진언행자를 포교사화 하는 진각 교화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연간 종책목표를 '진각 70년, 제2기 진각새불교운동의 토대마련'으로 정해 창교, 창종의 새불교운동의 의미를 정립하고 교화조직 및 환경을 혁신하겠다"며 "더불어 전 진언행자가 포교사가 되도록 의식을 재무장해서 새로운 시대속에 새로운 교화역량을 확대해가는 것을 4대 지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총인원 성역화 불사와 관련 회정 정사는 "총인원은 전 진언행자들의 정신적 중심공간이자 종단 모든 행정의 중심공간이며 나아가 교육과 수련, 연수, 더 나아가 한국 현대밀교 문화의 중심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국제체험관 및 교육관 완공 시기에 맞춰 템플스테이, 공연장 등 문화교육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묘법연화경〉 대장경 판각불사 시작
구인사 개산 7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신년 기자회견

▲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는 천태종 집행부

"천태종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 대장경 판각불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올해 구인사 개산 70주년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춘광스님은 "올해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며 "대규모 국제학술회의와 특별전시회, 문화예술제등을 통해 구인사와 천태종을 알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과거를 되새겨보고 내실을 다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요일별 특성화 법회를 실시해 지역 사찰별 특성에 맞게 실시토록 하겠다"며 "명상과 상담을 비롯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강화해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천태종은 올해 구인사와 분당 대광사에 전통명상수련센터를 문연다.

춘광스님은 이밖에 개성 영총사 10주년을 맞아 3사순례를 추진하고, 청소년문제 자살예방, 긴급구 호,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전문가그룹 네트워킹을 하는 국민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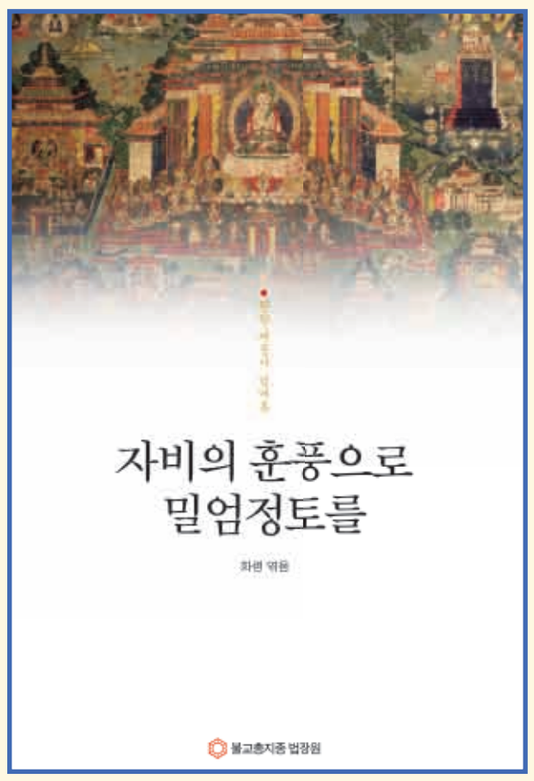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나라,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헌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 층 문의. 02-445-2326

불교총지종 전 종령 환당 대종사 법어록 『자비의 훈풍으로 밀엄정토를』



불교총지종 전 종령 환당(歡堂:1911.~1993) 대종사의 법어집이 총기44년 1월에 발간되었다. 『자비의 훈풍으로 밀엄정토를』 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법어집은 446쪽 양장본으로 불교총지종 법장원에서 환당 대종사 입적 20주기를 기념하여 발간한 것이다.

환당 대종사는 총지종의 종조인 원정대성사를 보필하여 불교총지종의 창종과 발전에 기여했으며 1986년에 종령에 추대되어 1993년 입적 때까지 법장원장과 중앙교육원장을 겸임했다.

저서로는 《불교총전》, 《정통밀교》와 《종조법설집》 등을 편찬했으며, 총지종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그리고 준제관음법의 근거가 되는 《현밀원통성불심요집》 등을 번역했다.

환당 대종사는 평소에도 뛰어난 인품과 자비행으로 교도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생활불교의 실천과 밀교에 대한 자부심이 특출했던 분이었다.

법어집 《자비의 훈풍으로 밀엄정토를》은 종단의 각종 행사에서의 법어와 강공회 등에서의 법문, 그리고 불교와 인생관에 대해 평소에 생각나는 대로 틈틈이 기록해 놓은 어록집의 세 부분으로 엮어는데, 법장원 화령 정사가 환당 대종사의 유필을 정리하여 윤문을 하고 자료를 모아 보충한 것이다.

법장원=배공주 기자

오키나와 열도의 왕국 '류큐'를 아십니까?

추우시죠? 박물관으로 오세요. 다양한 문화의 보고 박물관

음력 동지달의 매서운 추위는 불자들을 움츠리게 한다. 이런 때 박물관 나들이는 어떨까? 박물관은 사시사철 항온 항습으로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때문에 계절을 잊기에는 딱 좋은 장소다. 때마침 국립고궁박물관(경복궁 내)에서는 일본 오키나와의 옛 왕국 류큐 왕국의 '류큐 왕국의 보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류큐 왕국은 지금은 일본 오키나와로 불리는 곳으로 큐슈의 남쪽으로 대만 앞 까지 길게 늘어선 열도이다. 지금은 일본이 지배하는 영토로 하나의 현으로 편입된 이 비운의 왕국은 홍길동 전의 율도국으로 묘사된 이상적인 왕국이었다. 지금은 언어도 사라지고 흔적민 남은 류코 왕국을 만나러 나서보자

▲ 류큐왕국의 위치

▲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류큐왕국 모형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이귀영)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작된 '류큐 왕국의 보물' 특별전과 연계하여, 오키나와의 옛 왕국인 '류큐(琉球)'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 중에 있다.

1879년까지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 현에 존재했던 독립 왕국 류큐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류큐 왕국의 보물'은 그동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오키나와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개막 이후 국내외 관람객 30여만 명이 관람하였다.

오늘 2월 8일까지 무료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일본 내에서도 좀처럼 공개되지 않은 류큐 왕국 관련 유물이 한자리에서 전시되는 보기 드문 기회이다. 특히 이번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일본 중의원·참의원 일행과 일본 현지인들이 잇따라 방문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한-일 양국 간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본 특별전과 연계하여, 류큐 왕국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연과 강연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7일과 18일 류큐 고전 무용의 명가(名家) '다마구스쿠 교쿠센카이(玉成琉玉扇會)'가 펼친 "류큐의 바람: 오키나와의 춤과 노래"는 3차례 공연이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과 올해 1월 22일 국내외 류큐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강연 역시 2차례에 걸쳐 400여 명이 찾아 류큐 문화에 쏟아진 많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오키나와 전통문화 엿보기'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주최하고 일본 문화청이 협력하는 이 공연은, 류큐 왕실의 전통 음악 연주와 더불어 오키나와의 민속 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라이브 콘서트로, 오키나와의 과거와 현재를 음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과 강연을 통해 오키나와 문화의 정수를 담은 이번 행사는 최근 한·일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앞으로 양국 간 관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3701-7633)

▲ 류큐 고전무용 공연

▲ 류큐 왕실 전통 복식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 구립
포레스타 9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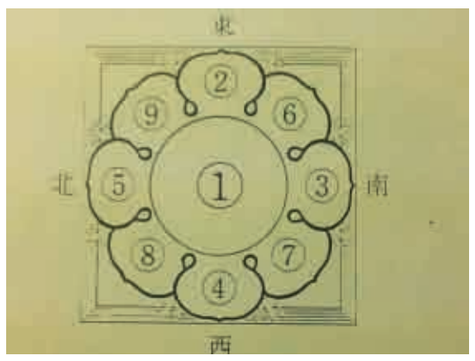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12)

태장계만다라의 두 번째 궁실(宮室), 『변지원(遍知院)』의 제존(諸尊)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지난호에서는 태장계만다라의 12대원(大院) 가운데 중심이 되는 궁실(宮室)인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중앙의 비로자나불과 동서남북의 사불(四佛), 사불을 협시하고 있는 사보살(四菩薩)이 모셔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태장계만다라의 중대팔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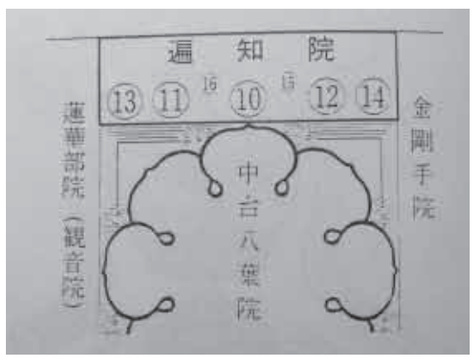
1. 대일여래
2. 보당여래
3. 개부화왕여래
4. 무량수여래
5. 천고뇌음여래
6. 보현보살
7. 문수보살
8. 관자재보살
9. 미륵보살

이번호에서는 중대팔엽원을 둘러 싸고 있는 궁실 가운데 하나인 '변지원(遍知院)'에 있는 여러 존상(尊像)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변지원은 중대팔엽원을 둘러싸고 있는데 가장 안쪽의 궁실(宮室)로 중대팔엽원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위쪽은 동방에 해당한다.

변지원은 대일여래가 갖추고 있는 지혜의 덕을 나타내는데, 변지(遍知)란 '널리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일체지(一切智)'를 나타낸다. 즉 부처님의 지혜를 가리킨다. 이 지혜는 반야로서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부처를 탄생케 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어머니로 비유된다. 그래서 지혜를 불모(佛母)라고 하며, 이 변지원을 달리 불모원(佛母院)이라 부르기도 한다.

변지원에는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을 중심으로 북방에 가야가엽(伽耶迦葉), 불안불모(佛眼佛母),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가 있고, 남방에는 우루빈라가엽(優樓頻羅迦葉), 대용맹보살(大勇猛菩薩), 대안락불공진실보살(大安樂不空眞實菩薩)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 지면 관계상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대일여래의 지혜의 덕성(德性)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변지원의 구조

10. 일체여래지인
11. 불안불모
12. 대용맹보살
13. 칠구지불모
14. 대안락불공진실보살
15. 우루빈라가엽
16. 가야가엽

▲ 변지원의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

▲ 태장계만다라 중대팔엽원의 구조로 조성된 석굴암

이 두 사람은 형제로서 원래 불을 모셔 제사 지내는 수행자들의 우두머리였으나 석존의 교화에 의해 항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변지원은 악마를 항복시키는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삼각형 안의 세 개의 광염(光焰)과 세겹으로 된 삼각형은 불부(佛部), 연화부(蓮華部), 금강부(金剛部)라는 태장계만다라의 3부의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일체제불(一切諸佛)이 내증(內證)한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삼각형 안의 만(卍)자는 평등무애한 법계로서 자수용신(自受用身)을 나타내고, 삼각형 위의 만(卍)자는 타수용신(他受用身)을 나타낸다.

자수용신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특성을 네 가지로 나눈 사종법신(四種法身) 가운데 하나로서 마음속의 지혜가 밝고 항상 진리를 비추어 스스로 그 즐거움을 즐기는 불신(佛身)을 말하고, 타수용신은 그 반대의 뜻으로 일체중생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지는 불신(佛身)으로 부처님 법의 즐거움을 주는 부처님이다. 쉽게 말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의미에서 변지원은 우리 중생들이 지혜를 증득하고 일체중생을 위하여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설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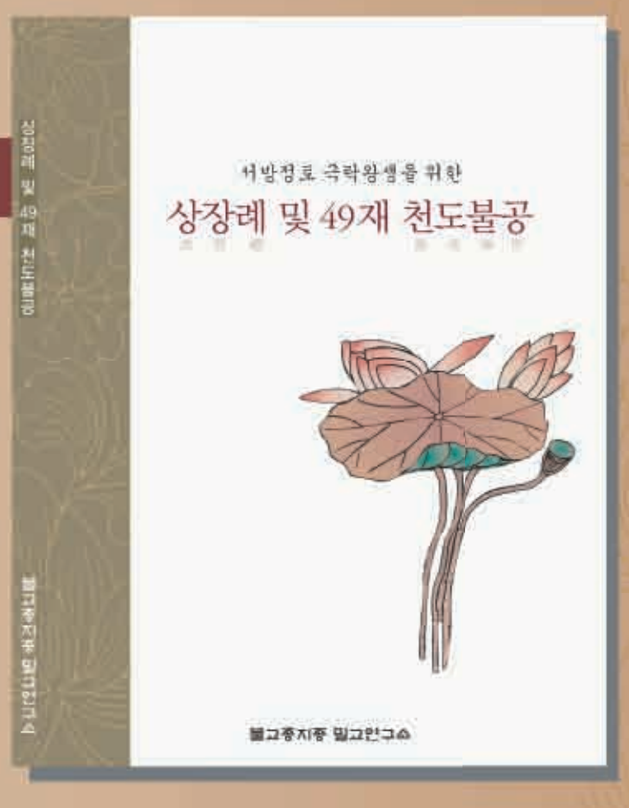
[다음호에서는 연화부원(蓮華部院)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재(齋)란 무엇인가?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49재를 행하는 이유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비매품/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을미년 한국불교종단 협의회 신년하례법회 봉행

"지혜의 덕화가 이룬 선근의 공덕,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한해 되기를"

▲ 한국 불교종단 협의회 을미년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는 1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을미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자승스님(종단협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종단협 부회장, 태고종 총무원장), 춘광스님(종단협 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회정정사(종단협 부회장, 진각종 통리 원장), 법등정사(종단협 상임이사, 총지종 통리원장)를 비롯 종단협 회원스님, 각 종단 임원 스님 등 수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신년하례법회 축원에서 춘광스님(종단협 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은 "불기2559년 을미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동참시회 대중 지심봉축, 대한민국 국운융창 국민화합 부국안민 불법홍포 성업성취지발원, 재고축 금차 신년법회 동참발원공덕, 삼업개청정 신심견고 영불퇴전 속성정각 광도중생 지발원"이라고 축원했다.

신년법어에서 자승스님(종단협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은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겸허한 성찰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며 "남과 북은 공존과 상생의 한 마음으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어, 국제정세의 거센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스님은 "이웃의 웃음에서 나의 행복이 보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정겨운 것은, 우리 모두가 본래 청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제는 우리의 너그러운 실천이 본래의 마음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승스님은 "참신한 수행문화 확산을 통해 시대와 시민이 감동하는 희망찬 한해를 열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의 정진이 사회 곳곳에 맑은 기운을 넘치게 하고, 지혜의 덕화가 이룬 선근의 공덕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년인사에서 회정정사(종단협 부회장, 진각종 통리원장)는 "'화합은 하심에서 소통은 나눔에서 이뤄진다'는 말이 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사회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며 "올 한해도 우리 한국불교가 그 구심점이 되어 불법을 널리 홍포하는 데 진력을 다해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사회를 정화하고 이 땅 이대로 불국정토를 만들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정정사는 "아무쪼록 올 한해도 모든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 공덕이 법계에 두루 회향되어 지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어 선근 쌓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불보살님전에 간절히 서원하다."고 인사했다.

신년발원에서 도산스님(종단협 부회장, 태고종 총무원장)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무량한 세월에 걸쳐 몸으로 지어온 그릇된 행동과 입으로 지어온 그릇된 언어와 마음으로 지어온 그릇된 망상들을 참회하고 정진의 힘을 모아 발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산스님은 "새해에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이 땅에 정토의 자비로움으로 국민과 불자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전에 발원했다.

법회는 명종, 개회, 헌화, 신년하례, 축원, 신년법어, 신년인사, 축사, 신년발원, 대불련 장학금 전달,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종단협(회장 자승스님)은 대불련(이채은, 53년차 회장)에 일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제1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대중공사 합의 실천과제 각급 종무기관 반영 제도화에 최선, 입법 필요한 과제는 집행부 차원 적극 노력

▲ 조계종 제1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혁신과 백년대개를 위한 제1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을 1월 28일 오전 11시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사부대중 167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종단혁신과 백년대개를 위한 제1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8가지로 최종 합의 도출된 의제는 △인재 양성 포교프로그램 개발 △사찰재정 투명화 △종단 신뢰 구축 △사부대중 참여를 통한 종단활성화 △승가공동체 회복 △사회적 의제 실천 △지역사회 사찰의 위상과 역할 강화 △교구중심의 지방분권화 방안이다.

이번에 채택된 8가지 의제는 10개 모둠 참여자의 수 백여 가지 의견(1명당 각 5가지) 중 한 모둠에서 5가지로 의견을 도출했다. 또, 50가지(10개 모둠×5가지)의 의견을 8가지 의제로 최종 합의 도출됐다.

위의 8가지 의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집중 토론을 거쳐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2월 24일(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종단혁신과 백년대개를 위한 제1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 사회는 집행위원장 일감스님, 집전은 총무국장 명본스님이 맡았다.

여는 말에서 지홍스님(공동추진위원장)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백년이 시작되는 첫걸음을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라고 이름 붙였다."며 "이 자리는 한국불교를 새롭게 재편하고 부처님의 법을 이어갈 결집의 장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홍스님은 "대중공사의 전통은 합의의 전통이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자리이다. 따라서 이 자리는 어떤 규칙이나 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며 "자유롭게 각자의 자리에서 느꼈던 종단의 현실과 미래의 방향에 대해 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시는 말에서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한국불교 근 현대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 불리 우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불교, 그리고 조계종단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에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여 붓다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하여 삶과 수행, 생활의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종도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오후 1시부터는 브리핑(통계로 본 한국사회와 종단의 현실), 대중공사 주제 도출을 위한 '종단 100년 대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사진을 제시해 이미지 연상하기, 단어(감사, 창의, 용기, 책임, 탁월, 헌신, 배려, 열정, 화합, 진실)를 제시했다.

이번 제1차 대중공사에서는 모둠토론을 10모둠으로 나눠서 각 모둠별 장소에서 진행했다.

특히, 6모듬 토론장에서 자승스님은 "그동안은 쇄신방향으로 종책을 잡았었으나 요즘은 방향을 5도 틀었다. 이번 대중공사로 인해 그 결실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보일 것이다"며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면 희망의 내일이 멀리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후 4시부터는 모둠토론 결과 발표, 8대 의제 선정 및 2차 대중공사 의제 발표가 있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103주년 탄신법요식 봉행

1월 18일 도용 구인사 광명전에서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3주년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됐다.

헌향 · 헌다 · 헌화으로 시작된 법요식은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열린 법회는에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민족의 수난기에 출현하시어, 무진겁의 법연을 따라 출가수행의 길을 걸으셨고, 각고정진으로 대각을 성취하시어 중생구제의 광활한 길을 열어 보이셨다"고 상월원각대조사를 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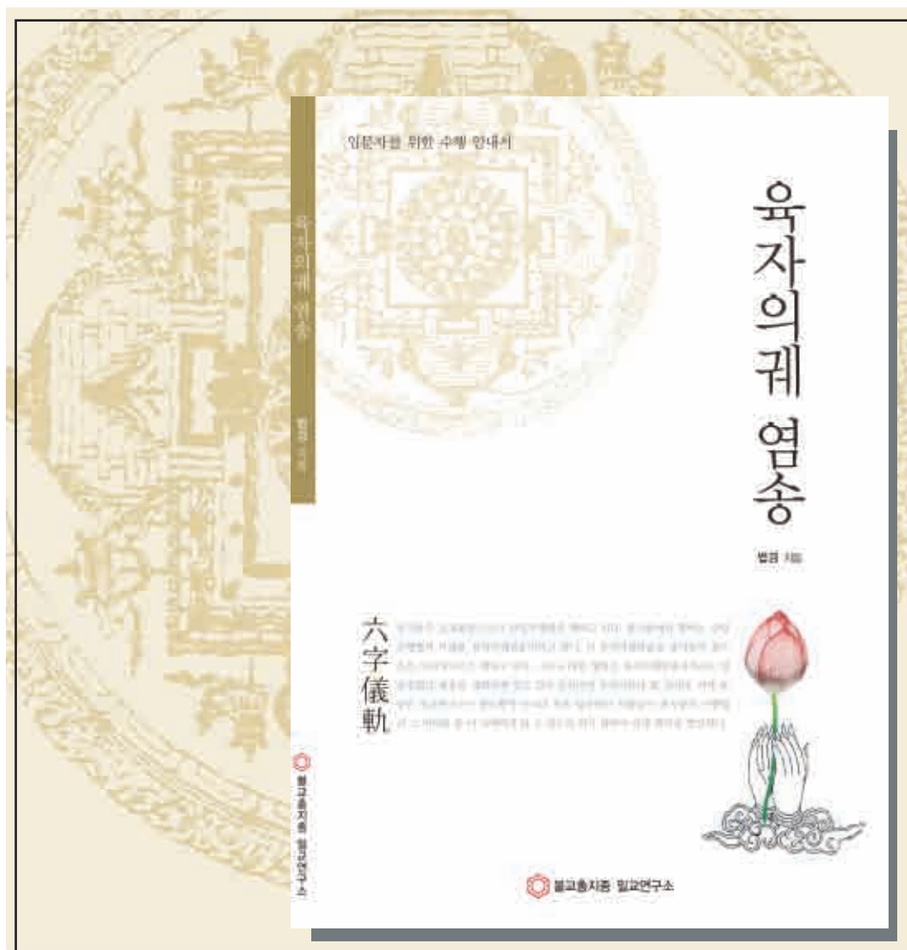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우리 민족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불교 중흥의 원력을 내세우시고 천태종의 법맥을 일으키셨다.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삼대지표로 우리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로 탄신 103주년을 축하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도산(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송광호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3주년을 축하했다.

법요식에는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정사를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불교 지도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송광호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단체장과 천태종 종도들이 참석했다.

단양 = 김종열 기자

▲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된 상월원각 대조사 103주년 탄신법요식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 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싣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유물로보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1213호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密陽 天皇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번지 천황사
시　　대 : 통일신라

▲ 제1213호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상남도 밀양 천황산 얼음골에 자리잡은 천황사 경내에 모셔져 있는 불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뛰어난 석불좌상이다.

파손된 것을 새로 만든 머리 부분을 포함하여 체구는 인체비례와 유사한 편인데 우아한 어깨, 당당한 가슴, 날씬한 허리에 얇은 옷의 표현으로 사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옷은 얇은 층단주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아하고 사실적인 형태는 8세기 중엽의 불상들과 상통하는 면이지만, 얇은 층단식 주름의 세련된 표현은 8세기 후반의 특징을 보여준다.

대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이는 독특한 사자좌(獅子座)인데, 상대·중대·하대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는 둥근 원판형 윗부분을 약간 높여 정교한 연주문(連珠紋)을 새기고 그 아래에 연꽃무늬를 2겹으로 조각하였다. 중대에는 2줄의 띠를 새긴 얕은 원형받침이 있다. 하대는 복판연화문 위에 11마리의 사자를 환조로 새기고 있는데 정면에는 향로같은 공양구를 끼웠을 것으로 보이는 구멍받침이 있다.

8세기 후반의 가장 우수한 석불상의 예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사자좌를 가진 석불좌상으로 크게 주목되며, 학술적으로도 신라 조각사에서 반드시 취급되어야 할 중요한 불상으로 여겨진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9. 월정마니수(月精摩尼手) 진언

옴 소싯지 아리 사바하

만약 열독병이 있어 청량함을 구하려면 이 진언을 외우라

VISUAL 불교총전

제 68 화

글/그림 정수일
cafe.daum.net/carissam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p-323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트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의 볼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트롤 수치를 내려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영화에서 불교보기 〈39〉

'욕망' 이라는 운명에 갇힌 불쌍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 〈동승〉

〈동승〉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 본 불교영화 중 가장 인상적인 엔딩 씬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동자승은 바랑을 짊어지고 절을 나옵니다. 절에서 나온 동자승을 기다리는 것은 눈보라 휘몰아치는 들판이었습니다. 높이 쌓인 눈 때문에 발이 푹푹 빠지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길을 동자승 혼자 까마득하게 걸어가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고단하고 외로운 운명을 표현하는 엔딩이었다고 봅니다. 대부분 불교 영화들이 결국에 가서 주인공들은 욕망을 극복하는데 반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욕망에 대한 집요함 때문에 고통스런 현실에 던져지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생을 대변하는 두 개의 단어를 고르라면 '욕망'과 '고苦'일 텐데 인간의 이 운명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준 엔딩 씬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동자승은 중생을 대변합니다. 헛된 욕망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동자승의 모습은 욕계를 사는 중생의 삶과 닮았고, 슬픈 운명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온도는 대체로 따뜻합니다. 욕망에 집착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탓하기 보다는 헛된 욕망인줄 알면서도 거기서 헤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냅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을 불쌍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인수 아버지의 모습은 영화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동승〉(한국, 2002)의 원작은 함세익 이라는 극작가가 쓴 같은 제목의 희곡입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연대는 1939년으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던 시절입니다. 이때 작가는 금강산 어느 사찰에 놀러 갔다가 사미승을 만났고, 이 만남에서 영감을 얻어 〈동승〉을 썼다고 합니다. 함세익의 희곡 〈동승〉은 1949년에 〈마음의 고향〉 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가 주경중 감독에 의해 〈동승〉 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된 것입니다.

영화는 암자를 배경으로 해서 동자승과 큰스님, 그리고 사춘기를 막 벗은 젊은 스님이 나오고, 인수 아버지라고 허드렛일을 하는 부목이 있습니다. 인물 구성 면에서 보면 대체로 동자승과 젊은 스님을 한 그룹으로 볼 수 있고, 큰스님과 부목을 같은 그룹으로 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앞의 젊은 그룹은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뒤의 그룹은 욕망을 초월한 집단으로 앞 그룹에 대해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조력자 그룹인 큰 스님과 인수 아버지는 역할 면에서는 동질적이지만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큰스님에게는 자신의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은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세속의 삶은 고통스런 것이니 그것에 마음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스님은 동자승이 욕망으로 가득한 세속의 삶에 빠지는 걸 경계하면서 한 편으로는 수행자의 틀 안에 동자승을 가두려고 합니다.

반면에 인수 아버지의 시선은 동자승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봅니다. 동자승이 괴로워하면 더불어 괴로워하고, 동자승이 기뻐하면 자신도 기뻐하고, 동자승이 원하는 건 자신도 소원하는 편입니다. 교육자의 역할보다는 엄마 역할에 가깝습니다.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을 가진 관세음보살과 같은 존재로서 그의 행동 기준은 휴머니즘입니다.

어린 동자승이 엄마를 그리워하자 부목은 어린 동자승의 마음을 이해하고 비록 거짓이긴 하지만 동자승에게 희망을 줍니다. 단풍나무에 금을 그어 키가 그만큼 자라면 엄마가 온다고 일러줍니다. 동자승은 그 희망을 갖고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큰스님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동자승이 괴로움에 빠질 걸 알기 때문에 큰스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주기 보다는 단칼에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타령 좀 그만하라고 나무라면서 스님 나름의 처방을 내립니다. 나무 아래 앉아 바위를 바라보면서 바위가 마음속에 있는지 마음 밖에 있는 것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준 처방이지만 배 아픈 사람에게 두통약을 주는 것처럼 동자승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처한 욕망과 고통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는 큰 스님의 태도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스님이 만든 울타리는 욕망에 들뜬 어린 승려에게는 너무 갑갑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타의 불교 영화들에 나오는 승려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여기 나오는 젊은 스님과 동자승은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속한 사람들입니다. 기질적으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건조한 가르침이나 장벽 높은 계율은 어울리지 않는 울타리였습니다.

동자승에게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보다는 결여감을 채워줄 따뜻한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인수 아버지는 동자승에게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절에 오는 보살님 중에 동자승이 특히 엄마처럼 여기는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이 두른 하얀 털 목도리를 보고나서 동자승은 자신도 엄마를 만나면 그 털목도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살이 둘렀던 털목도리는 욕망의 중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털목도리를 보지 않았다면 동자승은 토끼를 잡고 그 가죽을 벗길 생각을 못했을 텐데 동자승은 어느 날 그 털목도리를 봐버렸고, 그래서 토끼를 한 마리씩 잡아 살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큰 스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부목은 자신이 토끼 덫을 놓았고, 동자승에게는 잘못이 없다면서 대신 죄를 덮어씁니다. 부목은 동자승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보다는 혼날 걸 걱정하면서 괴로워하는 동자승을 도와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동자승이 살생을 저질렀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헛된 욕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자승이 부목에게는 그저 안쓰러울 뿐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보살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타의 불교 영화에서 욕망은 해결해야할 과제고, 숙제였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준 욕망은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동자승의 욕망은 엄마입니다. 9살짜리 동자승에게 엄마란 절대적 존재인 것입니다. 동자승의 마음속은 엄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욕망의 부피 때문에 다른 것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엄마에 대한 동자승의 욕망은 토끼를 살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마침내 절을 나가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절을 나가면서 인수 아버지에게 한 말이 인상 깊습니다.

"엄마를 찾아 세상 끝까지 가볼 거예요."

욕망을 쫓겠다는 결론입니다. 그 끝에서 동자승은 서울 보살이 말한 것처럼 '세상 모두가 어머니였다'는 차원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한 욕망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떠돌이의 스산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자승의 욕망은 동자승을 울타리 밖으로 내몰았고, 그 세계는 큰스님이 말한 것처럼 욕망과 고통이 가득한 세계인 것입니다.

한편 젊은 스님은 세상 구경을 다녀온 후 여자에 대한 욕망을 갖습니다. 욕망을 갖는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이를 악물고 참선을 하고 염불도 외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연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안 되겠는지 어느 날 절을 떠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욕망을 거스르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스님의 여유 자적한 경지는 결코 그냥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세상 만물이 어머니 아닌 게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경지고, 또한 사춘기 스님의 들끓는 욕망을 이겨낸 경지기도 한 것입니다. 젊은 스님이나 동자승이 욕망을 이겨냈을 때는 큰스님처럼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두 사람 다 욕망을 끊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스님처럼 나름 노력은 했지만 패배하는 경우도 있고, 동자승처럼 욕망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들은 모두 욕망의 덫에 갇힌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영화는 이 가여운 존재들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배자들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김은주 〈자유기고가〉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총기 44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홍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44년 상반기 49일 불공

총기 44년 2월 23일 ~ 4월 12일
장소 : 전국 서원당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928 Tel: 02.552.1080~3 Fax: 02.552.1082